

1. 동그라미가 되고 싶던 세모

-이기주-

옛날 옛적에 동그라미와 세모가 살았습니다.
둘은 언덕에서 구르는 시합을 자주 했는데
동그라미가 세모보다 늘 빨리 내려갔습니다.

세모는 동그라미가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동그라미를 이기기 위해

언덕 위에서 구르고 또 굴렀습니다.

어느새 세모의 모서리는 둥글게 다듬어졌습니다.
이제 동그라미와 비슷한 빠르기로
언덕길을 내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구를 때 잘 보이던
언덕 주변 풍경을 제대로 감상할 수 없었고,
구르는 일을 쉽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세모는 열심히 구른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시간을 되돌려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걸모습이 거의 동그라미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 다시 세모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2. 사랑은 종종 뒤에서 걷는다

-이기주-

어느 유명한 사회심리학자가 그러더군.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성 간의 사랑은 그 가운데 가장 배타적이라고. 어쩌면 사랑이 두 사람 단위로 한 이기주의일 수도 있다고.

그 말을 곰곰 되씹어봤다. 사랑에 빠지면 우리는 상대방을 독점하고 싶어 한다. 그러므로 사랑에는 이기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규정만으로 사랑의 본질을 단언할 순 없다. 사랑만큼 복잡한 감정도 없다. 기질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서로를 보완하고 아끼는 마음도 사랑이며, 각자가 지닌 삶의 조각을 맞추거나 서로에게 맞춰지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 또한 사랑이다.

언젠가 버스를 타고 신촌 거리를 지나고 있었다. 느릿느릿 걸어가는 노부부가 눈에 들어왔다. 젊은이들보다 확연히 느린 속도로 걷고 있는데 두 분이 한 발 한 발 내딛는 걸음새가 꽤 묘하게 보였다.

난 유심히 지켜봤다. 키가 큰 할아버지는, 키가 작은 할머니가 두 걸음 정도 내딛는 모습을 확인한 뒤 찬찬히 한 걸음 내디뎠다. 다리를 저는 할머니를 위해 미묘한 타이밍으로 보조를 맞추는 듯했다.

노부부의 모습에 가슴 한쪽이 아릿해졌다. 별안간 나는 이런 생각에 휩싸였다. 상대보다 앞서 걸으며 손목을 끌어당기는 사랑도 가치 있지만, 한 발 한 발 보조를 맞춰가며 뒤에서 따라가는 사랑이야말로 애뜻하기 그지없다고. 아름답다고.

그래, 어떤 사랑은 한 발짝 뒤에서 상대를 염려한다.

사랑은 종종 뒤에서 걷는다.

3. 분노를 대하는 방법

- 이기주-

분노는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인지 모른다. 살다 보면 누구나 상대방을 죽일 듯이 물어뜯고 싶은 순간이 있고 그런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 가는 경우도 많다. 화를 참지 못해 크나큰 화를 당하기도 한다.

극지에 사는 이누이트(에스키모)들은 분노를 현명하게 다스린다. 아니, 놓아준다. 그들은 화가 치밀어 오르면 하던 일을 멈추고 무작정 걷는다고 한다. 언제까지? 분노의 감정이 스르륵 가라앉을 때까지.

그리고 충분히 멀리 왔다 싶으면 그 자리에 긴 막대기를 꽂아두고 온다. 미움, 원망, 서러움으로 얽히고설킨, 누군가에게 화상을 입힐지도 모르는 지나치게 뜨거운 감정을 그곳에 남겨두고 돌아오는 것이다.

어느 책에서 이 이야기를 읽고는 내 분노가 훑고 지나간 스키드마크를 되짚어 보았다. 가끔은 노여움에 놓아주지 못하고 붙잡으려 한 것 같아서, 그런 기억이 떠올라서 얼굴이 불그스레 달아올랐다.

그리고 어쩌면 활활 타오르던 분노는 애당초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서 잠시 빌려온 건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이라는 냉각기를 통과해서 화가 식는 게 아니라, 본래 분노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간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빌려온 것은 어차피 내 것이 아니므로 빨리 보내줘야 한다.

격한 감정이 날 망가트리지 않도록 마음속에 작은 문 하나쯤 열어 놓고 살아야겠다. 분노가 스스로 들락날락하도록, 내게서 쉬이 달아날 수 있도록

4. 김동률 "출발" - 노래

아주 멀리까지 가 보고 싶어
그곳에선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멍하니 앉아서 쉬기도 하고
가끔 길을 잃어도
서두르지 않는 법
언젠가는 나도 알게 되겠지
이 길이 곧 나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촉촉한 땅바닥 앞서 간 발자국
처음 보는 하늘 그래도 낯익은 길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새로운 풍경에 가슴이 뛰고
별것 아닌 일에도
호들갑을 떨면서
나는 걸어가네 휘파람 불며
때로는 넘어져도
내 길을 걸어가네
작은 물병 하나 먼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내가 자라고 정든 이 거리를
난 가끔 그리워하겠지만
이렇게 나는 떠나네
더 넓은 세상으로

5. <금도끼 은도끼>

출처: 청와대 놀이마당

옛날 어느 마을에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은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그만 연못 속에 도끼를 '퐁덩' 빠뜨렸습니다.
"아이고, 하나밖에 없는 도끼인데. 아이고."
그런데 갑자기 연못물이 움직이더니, 신령님이 나왔습니다.
"누구요?"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신령이오. 왜 울고 있소?"
"하나밖에 없는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습니다. 아이고"
"내가 찾아주지요."
"그렇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나무꾼은 신령님을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 연못물이 움직이더니, 다시 신령님이 나왔습니다.
"이 금도끼가 당신 도끼 맞으시오?"
"아니요, 내 도끼는 그렇게 비싼 도끼가 아니요."
"그럼 다시 찾아보고 오리다."
한참 뒤 연못물이 또 움직이더니, 다시 신령님이 나왔습니다.
"자. 이 은도끼가 당신 도끼 맞으시오?"
"내 것은 비싼 것도 아니고 새것도 아닙니다."
신령님은 다시 연못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한참 뒤 연못물이 움직이더니, 신령님이 나왔습니다.
" 쇠도끼가 당신 도끼가 맞으시오?"
"아! 예! 그 쇠도끼가 제 도끼가 맞습니다!"
"오, 당신은 욕심이 없군. 내가 선물로 금도끼 은도끼를 드리리다."
"고맙습니다!"
신령님은 다시 연못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욕심쟁이가 도끼를 가져와서 도끼를 연못에 빠뜨리고 우는 척을 했습니다.
"이히히! 난 이제 부자다!"
그러자, 신령님이 나왔습니다.
"왜 울고 있소?"
"아이고, 제 하나밖에 없는 도끼를 연못에 빠뜨려서 울고 있습니다."
"아 그럼 내가 찾아드리리다."
신령님은 연못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 금도끼가 당신 도끼 맞소?"

"예! 그 금도끼가 제 도끼 맞습니다!"

"예끼! 이놈 어디서 거짓말을 하느냐!"

신령님은 도끼를 주지 않고 연못 속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욕심쟁이는 결국 욕심을 부리다 도끼 잃고야 말았답니다.

6. <호랑이와 꽃감>

출처: 청와대 놀이마당

옛날 아주 옛날의 일입니다.

배가 고프 호랑이 한 마리가 어느 날 밤, 어슬렁거리며 마을로 내려왔어요.

호랑이는 입맛을 쭉뺌 다시며 중얼거렸어요.

"어휴, 뭐 먹을 게 없을까?"

"으앙, 으아앙!"

그때 어느 집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크게 들려왔어요.

"어떤 아이가 저렇게 크게 울지?"

호랑이는 그 집 마당으로 들어섰어요.

"울음을 안 그치면 곰한테 줄 거야!"

방에서 아이를 달래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도 아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거 참 시끄럽네."

호랑이가 머리를 흔들며 막 돌아가려고 할 때였어요.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너 자꾸 울면 호랑이한테 준다!"

"뭐? 나한테 아이를 준다고?"

호랑이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호랑이는 방문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으앙, 으아앙!"

아이의 계속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그 녀석, 내가 무섭지도 않나?"

하지만 호랑이는 아이가 계속 울기를 바랐어요.

그래야 엄마가 아이를 냉큼 줄 테니까요.

호랑이는 울음소리를 들으며 빙그레 웃었어요.

그 때 호랑이의 배에서 '꼬르륵꼬르륵' 하는 소리가 힘차게 울렸어요.

호랑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침을 삼켰어요.

그러나 아이가 아무리 울어도 엄마는 아이를 호랑이에게 내어주지 않았어요.

기다리다 지친 호랑이는 별떡 일어났어요.

그때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휴~ 애도 참. 그래, 꽃감 여기 있다!"

그러자 아이가 언제 울었냐는 듯이 울음을 툭 그쳤어요.

"어라, 저 녀석 봐라? 꽃감 저게 얼마나 무섭길래 아이가 저렇게 울음을 툭 그치지?"

호랑이는 머릿속으로 커다란 괴물을 떠올렸어요.

“어이쿠, 어서 도망가야지.”

호랑이는 외양간으로 몸을 숨겼어요.

얼마 후, 시커먼 그림자 하나가 외양간으로 살금살금 들어왔어요.

“저게 곳감인가보다!”

호랑이는 소 뒤로 몸을 숨겼어요.

그런데 그 큰 그림자가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크, 들켰구나!” 호랑이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오? 이놈의 소가?”

그림자는 바로 외양간에 소를 훔치러 온 도둑이었어요.

도둑은 호랑이의 등에 날름 올라탔답니다.

호랑이는 그것도 모르고 곳감이라는 괴물이 등에 탄 줄 알고 있는 힘을 다해 뛰었어요.

“아이고, 이 소가 왜 이렇게 날뛰는 거야?”

도둑도 어두운 밤이었기 때문에 호랑이를 소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참을 달려서야 자기가 호랑이 등에 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런, 호랑이었잖아, 지금 떨어지면 정말 큰일날 거야!”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며 빨리 달릴수록 도둑은 불안해졌어요.

호랑이는 밤새도록 달리다가 커다란 구멍이 뚫린 나무 앞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소도둑은 벌벌 떨며 나무 구멍 속으로 쑥 숨었어요.

그때 엉금엉금 길을 걷던 곰 한 마리가 호랑이를 발견하고 흔들어 깨웠어요.

“너 왜 여기서 자고 있는 거야?”

호랑이는 벌떡 일어나 중얼거렸어요.

“응? 곳감은?” 그러고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호랑이는 곰에게 어젯밤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곰도 잔뜩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떨었어요.

호랑이와 곰이 꿈무늬를 빼며 달아나자 소도둑은 나무구멍에서 슬그머니 나왔어요.

“소 도둑질을 하려는 내게 벌을 내리신 거야.”

소도둑은 중얼거리며 산을 내려왔어요.

그 이후로는 남의 소를 탐내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았답니다.

7. 별 헤는 밤 -윤동주(1917~1945)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과

별 하나에 시와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 이름과 패 佩, 경 鏡, 옥 玉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스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슬히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 北間島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 보고,

흙으로 덮어 버렸습니다.

따은 밤을 새워 우는 별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재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게외다.

8. 꽃 -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 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9. 굽이 돌아가는 길

-박노해-

올곧게 뻗은 나무들보다
휘어 자란 소나무가 더 멋있습니다.
똑바로 흘러가는 물줄기보다는
휘청 굽이친 강줄기가 더 정답습니다.
일직선으로 뚫린 빠른 길보다는
산 따라 물 따라 가는 길이 더 아름답습니다.

곧은 길 끊어져 길이 없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돌아서지 마십시오.
삶은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있다는 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

곧은 길만이 길이 아닙니다.
빛나는 길만이 길이 아닙니다.
굽이 돌아가는 길이 멀고 쓰라릴지라도
그래서 더 깊어지고 환해져 오는 길
서둘지 말고 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생을 두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10. 소설 <모순> 중에서

-양귀자-

실수는 되풀이된다. 그것이 인생이다.

사람들은 작은 상처를 오래 간직하고 큰 은혜는 얼른 망각해 버린다.

상처는 꼭 받아야 할 빛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는 꼭 돌려주지 않아도 될 빛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장부책 계산을 그렇게 한다.

나의 불행에 위로가 되는 것은 타인의 불행뿐이다.

그것이 인간이다.

억울하다는 생각만 줄일 수 있다면 불행의 극복은 의외로 쉽다.

상처는 상처로밖에 위로할 수 없다.

세상의 숨겨진 비밀들을 배울 기회가 전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말해도 좋다면 몹시 불행한 일이다.

그것은 마치 평생동안 똑같은 식단으로 밥을 먹어야 하는 식이요법 환자의 불행과 같은 것일 수 있다.

인생은 짧다.

그러나 삶 속의 온갖 괴로움이 인생을 길게 만든다.

소소한 불행에 대항하여 싸우는 일보다는 거대한 불행 앞에서 차라리 무릎을 꿇어 버리는 것이 훨씬 견디기 쉬운 법이다.

인생은 탐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탐구하는 것이다.

실수는 되풀이된다.

그것이 인생이다.

11. 수필

-피천득-

수필은 청자 연적이다. 수필은 난이요, 학이요, 청초하고 몸맵시 날렵한 여인이다. 수필은 그 여인이 걸어가는, 숲 속으로 난 평탄하고 고요한 길이다. 수필은 가로수 늘어선 포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길은 깨끗하고 사람이 적게 다니는 주택가에 있다.

수필은 청춘의 글은 아니요, 서른여섯 살 중년 고개를 넘어선 사람의 글이며, 정열이나 심오한 지성을 내포한 문학이 아니요, 그저 수필가가 쓴 단순한 글이다.

수필의 빛깔은 황홀 찬란하거나 진하지 아니하며, 검거나 희지 않고, 퇴락하여 추하지 않고, 언제나 온아 우미하다. 수필의 빛은 비둘기 빛이거나 진주빛이다. 수필이 비단이라면, 번쩍거리지 않는 바탕에 약간의 무늬가 있는 것이다. 무늬는 사람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한다.

수필은 한가하면서도 나태하지 아니하고, 속박을 벗어나고서도 산만하지 않으며, 찬란하지 않고 우아하며 날카롭지 않으나 산뜻한 문학이다.

수필의 재료는 생활 경험, 자연 관찰, 인간성이나 사회 현상에 대한 새로운 발견 등 무엇이든 좋을 것이다. 그 제재(題材)가 무엇이든지 간에 쓰는 이의 독특한 개성과 그 때의 심정에 따라, '누에의 입에서 나오는 액이 고치를 만들 듯이' 수필은 써지는 것이다.

또 수필은 플롯이나 클라이맥스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필자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수필이 행로이다. 그러나 차를 마시는 것과 같은 이 문학은, 그 차가 방향을 가지지 아니할 때에는 수도물같이 무미한 것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 마음의 여유가 없어 수필을 못 쓰는 것은 슬픈 일이다. 때로는 억지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다가, 그런 여유를 가지는 것이 죄스러운 것 같기도 하여, 나의 마지막 10분의 1까지도 수제 초조와 번잡에다 주어 버리는 것이다.

● 출처 : 피천득, 수필, 산호와 진주 (수필 중 일부 내용 발췌)

12. 같이 걸을까 <노래 가사>

- 이적

피곤하면 잠깐 쉬어가
갈 길은 아직 머니까
물이라도 한잔 마실까
우린 이미 오래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니까

높은 산을 오르고
거친 강을 건너고
깊은 골짜기를 넘어서
생의 끝자락이
달을 곳으로 오늘도

길을 잃은 때도 있었지
쓰러진 적도 있었지
그러던 때마다 서로 다가와
좁은 어깨라도 내주어
다시 무릎에 힘을 넣어

높은 산을 오르고
거친 강을 건너고
깊은 골짜기를 넘어서
생의 끝자락이
달을 곳으로 오늘도

어느 곳에 있을까
그 어디로 향하는 걸까
누구에게 물어도
모른 채 다시 일어나

산을 오르고 강을 건너고
골짜기를 넘어서
생의 끝자락이
달을 곳으로 오늘도

13. 가을 비에게 <시>

-이해인

여름을 다 보내고
차갑게
천천히
오시는군요

사람과 삶에 대해
대책 없이 뜨거운 마음
조금씩 식히라고 하셨는지요?

이제는
눈을 맑게 뜨고
서늘해질 준비를 하라고
재촉하시는군요

당신이 오늘은
저의 반가운
첫 손님이지군요

14.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이승철

천 번이고 다시 태어난대도
그런 사람 또 없을 테죠
슬픈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준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 그댈 위해서 나의 심장썸이야
얼마든 아파도 좋은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나 태어나 처음 가슴 떨리는
이런 사랑 또 없을 테죠
몰래 감추듯 오랜 기억 속에
단 하나의 사랑입니다.
그런 그댈 위해서 아픈 눈물썸이야
얼마든 참을 수 있는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도
그대 웃어준다면 난 행복할텐데
사랑은 주는 거니까 그저 주는 거니까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15. 길

-GOD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뤄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걷고 싶지만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뤄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구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16. [일기예보]

다음은 일기예보입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지금 아주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아침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낮부터는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낮 동안 포근하고 따스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5월 중순에 해당하는 기온이 예상됩니다.

다만 아침저녁으로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대기는 계속해서 건조합니다.

특히 강원 동해안에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13.2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전주와 대전이 26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이 23도, 대구가 27도, 부산이 21도로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수요일에는 전국적으로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일기예보였습니다.

17. 2022 대한민국 기후위기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기후위기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다. 유럽 같은 선진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다가올 세계 공통의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자리 잡았다.

지금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문제는 해법이고, 그 핵심은 에너지다. 석탄발전, 원자력발전(원전), 재생에너지에 대한 생각을 몰았다. 우선 석탄발전 중단에 동의한다는 입장이 많았다. '석탄발전소 퇴출'에 관한 한 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러나 탈석탄의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론이 갈린다. 화력발전에 비해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원전 때문이다. 국내에서 원전 반대 여론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급증했다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눈에 띄는 대목은 그다음 질문이다. '원전보다 재생에너지를 확충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라는 문항에 응답자 68.5%가 동의했다. 앞의 '원전 계속 가동'에 동의한 응답자 중 상당수가 '원전보다 재생에너지'라는 선택을 보여준 것이다.

원전의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를 채택하는 데 놓인 가장 큰 장애물은 결국 돈이다. 기반시설이 부족한 한국으로서는 재생에너지 도입에 큰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적이라고 생각한 질문 두 개를 던졌다.

첫째, 재생에너지 도입으로 10년 내 전기료가 두 배 이상 올라도 감수할 수 있을까. 둘째,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내가 사는 동네에 재생에너지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괜찮을까. '나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재생에너지 도입에 손을 들어줄 응답자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었다.

결과는 놀라웠다. '전기료 두 배 인상'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48.4%, 동의하지 않는다가 45.4%였다(모르겠다 6.2%). 오차범위 내지만, 동의 응답이 더 높았다.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우리 동네에 재생에너지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괜찮다고 답한 이들도 61.2%나 됐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다. '우리'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얼마나 '실천'하고 있을까. '일회용품 줄이기'가 가장 응답률 높은 실천 방식이었다. 그다음으로 줄여야 하는 것으로는 '자동차 이용' '배달음식' 등이었다. 반면 일회용품과 배달음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사람도 각각 15.9%, 34.2%로 나타났다.

기후위기는 개개인마다 민감도가 뚜렷이 갈리는 의제다. 타고난 식습관까지 바뀌가며 실천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일회용품 줄이기조차 하지 않는 이들도 있다. 이들 집단 간 '격차'가 벌어질 경우 언젠가 사회적 갈등이 싹틀지도 모른다.

눈여겨본 것은 '기후위기 때문에 자녀를 출산하지 않겠다'(15.8%)라는 응답자들이다. 20대 남성은 9.9%에 불과한 데 비해 20대 여성은 33.5%나 됐다. 차이가 3배를 넘는 다. 30대 남성(22.9%)과 30대 여성(24.3%)의 응답도 평균보다 높았다. 이들의 응답을 보면 기후위기가, 전 세계 꼴찌인 한국의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기후위기를 국가 최고 의제로 끌어올릴 명분이 될 만하다.

<출처 : 시사IN '2022 대한민국 기후위기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기사 편집 및 부분 발췌, 2022. 01. 10 글 이오성, 김다운 기자>

18. 자신을 사랑합시다

자신을 사랑합시다. 상처 주지 맙시다.

스스로를 상처 입히면,

그 상처 나을 때까지 아픈 것도

상처를 낫게 하기 위해 쓴 약을 먹어야 하는 것도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넘어져도 결국 일어나야 하고

일어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의 두 다리라는 것을,

그래서 더 아껴야 하는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자신을 사랑합시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웁시다.

달콤하지만 헛된 사랑에 넘어가지 말고

든든하고 따뜻한, 뿌리 같은 사랑을 합시다.

조미료같이 한순간 맛있는 사랑보다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랑을 합시다.

자신을 사랑합시다.

가끔 게으름을 피웁시다. 요령도 피워봅시다.

게으름으로부터 부지런함의 미덕을 배워보고

요령을 피우면서 원칙의 중요성을 배웁시다.

하지만 자신의 페이스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만큼만 게을러집시다.

게으름에 익숙해져 뛰는 법을 잊어버릴 때,

게으름에 익숙해서 원칙을 잊어버릴 때,

그것은 뛰다가 지치는 것보다 스스로를, 때로 다른 이까지

더욱 지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반대로,

자신을 너무 채찍질하지 맙시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어떻게 쉬느냐에 달려있다’고

<탈무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충분히 쉬 쉬 있는 시간을 줍시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발견합시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새로운 기쁨이 되고,

기쁨은 당신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합시다.

방황하는 모습도 사랑합시다.

방황하는 모습은 당신이 삶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끔은 밤새 술을 마셔도 좋습니다. 눈물을 흘려도 좋습니다.

단, 술과 눈물은 문제를 잠시 잊을 수 있게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다음 날, 햇볕이 내리쬐면

숨기지 말고 모든 문제를 햇볕 아래에 드러냅시다.

상처는 의사와 상담해야 하듯,

어두운 데서 나와 밝은 날 햇볕에게 문제를 상담합시다.

커다랗게 보이던 문제는 의외로 작고,

깊어 보이던 상처는 생각보다 얇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와 상처를 눈물과 함께 햇볕에 증발시켜버립시다.

자신을 사랑합시다.

‘자신을 사랑하자’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시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합시다.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야

남을 사랑하는 방법도 알게 되니까요,

이 모든 것은 결국,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을 사랑합시다.

<출처 : 일 센터 첫 번째 이야기 중에서, 글 김은주>

19. 실패 없는 삶은 없다

-정호승-

10년 가까이 정성껏 키우던 난 하나를 쓰레기통에 버려버린 적이 있다. 제때에 물을 주고 아무리 정성을 기울여도 꽃 한 번 피우지 않는 게 너무나 밍고 야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곧 크게 후회하게 되었다. 10년 동안 죽지 않고 내 곁에 살아 있었다는 그 자체가 바로 한 송이 꽃을 피운 거였다. 비록 눈에 보이는 꽃은 피우지 않았지만 건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춘란은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나는 그것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꽃을 피우는 것만이 춘란이 성공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멀쩡하게 살아 있는 춘란을 쓰레기통에 버려버렸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것은 그동안 내가 실패와 성공의 단순한 이분법에 철저하게 길들여져 있었던 탓이라고 생각된다. 어쩌면 나는 꽃을 피우지 않는 춘란을 곧 실패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나 자신과 동일시했는지도 모른다.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눈에 보이는 춘란의 꽃을 바랐듯이 눈에 보이는 성공을 바란다. 그러나 성공은 눈에 잘 보이는 것이 아니다. 성공은 거대한 것이 아니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사소한 데에 있다. 성공은 형식과 물질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삶에 대한 이해와 긍정 속에 있다. 사실 건강한 육체와 마음을 지니고 열심히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돈을 좀 못 벌면 어떤가. 돈이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목마른 것이 아닌가. 성공이 큰 것에 있지 않고 작은 데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늘 큰 것만 지향하다가 작은 것을 보지 못하고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데에 오늘을 사는 우리의 불행이 있다.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외형적 삶에다 자신의 삶을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자기 자신의 내면적 삶을 찾는 데에 주력하지 않고 남의 외형적 삶을 들여다보고 부러워하면 우리의 삶은 늘 불행하다.

우리는 지금 다들 실패를 두려워하는 병에 걸려 있는지 모른다. 어쩌면 나 자신도 실패를 두려워하는 암에 걸린 환자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라. 실패 없는 삶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실패의 연속으로 이루어진다. 성공하지 못하면 인생이 곧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은 실패가 인생의 시작이다. 보다 실패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실패를 통해 슬픔과 비애보다는 기쁨과 감사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실패에서 성공의 향기가 난다. 성공도 남이 만들어주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다. 성공에는 실패를 통한 자신의 노력과 정성과 눈물이 들어 있어야 한다.

20. 소나기 중에서...

-황순원-

소년은 개울가에서 소녀를 보자 곧 윤 초시네 증손녀딸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소녀는 개울에다 손을 잠그고 물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서는 이런 개울물을 보지 못하기나 한 듯이. 벌써 며칠째 소녀는 학교서 돌아오는 길에 물장난이었다. 그런데 어제까지는 개울기슭에서 하더니, 오늘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서 하고 있었다. 소년은 개울둑에 앉아 버렸다. 소녀가 비키기를 기다리자는 것이다. 요행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소녀가 길을 비켜 주었다.

다음날은 좀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이 날은 소녀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 세수를 하고 있었다. 분홍 스웨터 소매를 걷어 올린 팔과 목덜미가 마냥 희었다. 한참 세수를 하고 나더니, 이번에는 물 속을 뻗히 들여다본다. 얼굴이라도 비추어 보는 것이리라. 갑자기 물을 움켜 낸다. 고기 새끼라도 지나가는 듯. 소녀는 소년이 개울둑에 앉아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날쌔게 물만 움켜 낸다. 그러나 번번이 허탕이다. 건너는 사람이 있어야 길을 비킬 모양이다. 그러다가 소녀가 물 속에서 무엇을 하나 집어낸다. 하얀 조약돌이었다. 그리고는 훌쩍 일어나 팔짝팔짝 징검다리를 뛰어 건너간다. 다 건너가더니 핵 이리로 돌아서며,

"이 바보."

조약돌이 날아왔다. 소년은 저도 모르게 별떡 일어섰다. 단발머리를 나풀거리며 소녀가 막 달린다. 갈밭 사잇길로 들어섰다. 뒤에는 청량한 가을 햇살 아래 빛나는 갈꽃뿐. 이제 저쯤 갈밭머리로 소녀가 나타나리라.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했다. 그런데도 소녀는 나타나지 않는다. 발돋움을 했다. 그리고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됐다. 저쪽 갈밭머리에 갈꽃이 한 움큼 움직였다. 소녀가 갈꽃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천천히 걸음이었다. 유난히 맑은 가을 햇살이 소녀의 갈꽃머리에서 반짝거렸다. 소녀 아닌 갈꽃이 들길을 걸어가는 것만 같았다. 소년은 이 갈꽃이 아주 뵈지 않게 되기까지 그대로 서 있었다. 문득 소녀가 던진 조약돌을 내려다보았다. 물기가 견혀 있었다. 소년은 조약돌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 다음 날부터 좀 더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소녀의 그림자가 뵈지 않았다. 다행이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다. 소녀의 그림자가 뵈지 않는 날이 계속될수록 소년의 가슴 한구석에는 어딘가 허전함이 자리잡는 것이었다. 주머니 속 조약돌을 주무르는 버릇이 생겼다.